

우리집 애물단지 나가면 보물단지

'지구를 위한 작은 재활용 장터'

장터 '보물섬'에 가면 즐거운 재활용 찾기 하듯, 필요한 것들을 장만할 수 있다. 작아서 못 입게 된 옷, 이미 읽은 한책, 아이가 커버려 필요 없게 된 장난감 등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 팔수 있다. 내가 가게 주인이 되고, 손님도 되는 즐거운 장터다.

'보물섬'은 지난 2009년 3월 처음 시작됐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 광주문진교회, 무각사 등 4대 종교가 함께 마음을 모아장을 열었다.

올해부터는 변화를 모색한다. 우선 한달에 한번 열리는 장터를 매주 한번으로 늘렸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 상무지구 5·18기념공원 내 무각사 앞 주차장에 정이 선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트마켓'과 계절나물, 유정란, 우리밀 등 신선한 제철 농산물, 씨앗·모종 등 태평온음을 판매하는 코너도 새롭게 운영되며 재능 기부꾼들의 공연과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먹을거리가 빼질 수 없다. 장터국수와 김밥, 음료, 부침개 등 판매되며 개인컵이나 장바구니를 가져오면 음료를 할인해 준다.



매주 토요일 문을 여는 재활용 장터 '보물섬' 첫번째 행사가 오는 10일 무각사 주차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재활용품 장터 '보물섬' 10일 첫 개장

아트마켓·제철 농산물 마켓 등 단장

매주 토요일마다 무각사에서 진행

매주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마련된다. 장애인의 날에는장애인 악단의 공연이 펼쳐져며 지구의 날에는 극단 토박이의 환경극이 공연된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큰잔치 행사를 계획 중이다. 또 여름에는 야시장을 개설하고, 가을에는 햅쌀 특판 행사, 겨울에는 김강 잔치를 벌이는 등 계절에 맞는 행사도 준비중이다.

'키스할까요?' 광주 앙코르 공연

'사랑이란 뭘까?'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사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연극 '키스할까요?'가 광주 관객们을 만난다. 10월~4월 8일까지 광주 상무지구 우체국보험 16층 기분좋은 극장.

기본 줄거리는 연애이상주의인 치과의사 이준휘와 그의 연인 정하니, 간호사 최지숙과 시나리오 작가 이근이 엮어가는 사랑 이야기다.

지속과 만난 하니는 지속이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준휘는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을 수습하기 위해 이를 쓰지만 일은 점점 꼬여만 간다.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의 작가로 유명한 에이브 베리우스의 '선인장 꽃'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주인공 이준휘 역에는 영화 '고지전'에 출연했던 이승준과 뮤지컬 '위대



한 캐스팅에서 활약한 흥서준이 더블캐스팅 됐으며 장설희·이종혁 등이 출연한다.

2010년부터 광주MBC와 유쾌한 상상이

진행하고 있는 '연극이 좋다' 시리즈 작품의 하나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브랜드 공연축제 작품 공모

'사평역' '언젠가 봄날에' 선정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완)의 '사평역'과 늘어徘 신명(대표 김호준)'언젠가 봄날에'가 페스티벌 '오!광주·브랜드공연축제' 무대에 공식 초청된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지역 민간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브랜드공연축제 연극 작품을 공모, 5개 작품 가운데 '사평역' 등 두편을 8일 선정했다.

'사평역'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고달픈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간이역이라는 공간에 펼쳐 보인 작품으로서 2010년 광주연극제에서 대상, 연출상, 무대미술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언젠가 봄날에'는 창작탈굿, 소리, 춤이 어우러지는 한국형 뮤지컬. 지난 2010년 5·18민중항쟁 30주년기념마당극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맛깔스런 전라도 사투리와 민중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두 작품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열리는 브랜드공연축제에 공식 초청되며, 1000만원이 지원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6689.

www.geumsoojang.com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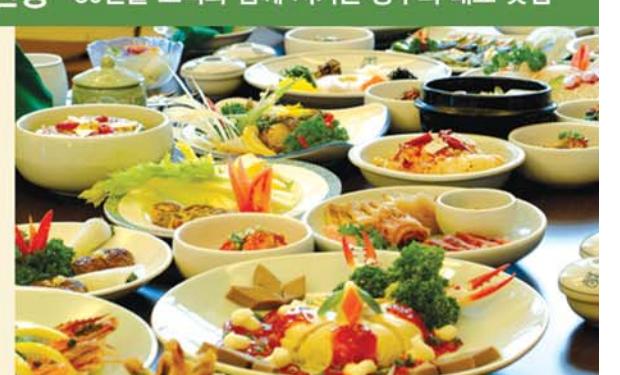
G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족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에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 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U-square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24시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에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한국화 어제와 오늘

미술협, 21일까지 시립미술관서 조망전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가 9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2012 한국화 조망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흐름과 한국화의 미래를 한 자리에서 감상하고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김대원·김종경·박홍수·박문수·김연수·강요상 등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화가 33명이 참여한다. 현대 미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서양 미술 양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한국화의 현 주소를 직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참여한 작가들은 전통 한국화를 비롯 서구 현대미술양식을 반영, 재해석하고 표현, 개척해 나가는 등 다양한 화풍으로 한국화를 표현해내고 있다.

서정적 농촌풍경이나 전통 한국화의 기법과 색채의 틀을 벗어나 강렬한 채색과 추상성을 강조한 작품 등이 선보인다. 문의 062-222-8053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대원 작 '행복을 노래하다'

화폭에 그윽한 매화향기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오늘부터 허달재 초대전

산과 들이 봄꽃으로 향기로워지기 시작하는 시기, 화랑가도 꽃바람이 한창이다.

한국화가 직현 허달재씨가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매화를 소재로 삼아 하도붉게 피어 검은색이 돈다는 '흑매'를 비롯, 화려한 연분홍색을 띠는 '홍매',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흐드러진 '백매' 등 매화를 담아낸 작품 15점이 나온다.

화시하게 꽃망울을 터트린 원색의 그림이 30평 전시장에 펼쳐지면서 매화 향기도 한층 짙게 느껴질 듯하다.

허씨는 의해 허백련(1891~1977) 화백의 장손으로 할아버지의 화풍을 익혔으면서도 대화·수목화의 전통적인 소재를 표현해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하고 있는 대표작이다. 문



'백매'

의 062-383-0070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